

## 메시지 4

### 야곱—변화의 과정을 통해 생명이 성숙되고 몸의 생활을 위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의 본

성경: 창 28:10-22, 32:28, 47:7, 롬 5:17, 21, 8:28-29, 9:10-13, 12:1-2

- I. 로마서와 창세기는 야곱의 예를 사용하여,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며, 영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하심으로, 사람이 생명 공급이신 아들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온 땅을 통치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—말 1:2, 롬 9:10-13, 창 25:22-23, 엡 1:4, 창 27:41, 28:1-35:10, 37, 39-49장, 롬 8:28-29.
- II. 야곱의 체험은 벤엘, 곧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의 꿈의 통제를 받는다—창 28:10-22.
- A.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꿈, 벤엘에 대한 꿈,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인데,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몸의 생활인 교회이며(딤후 3:15, 롬 12:1-2)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된 선민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(계 21:3, 22).
  - B.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시어 하늘(하나님)과 땅(사람)을 하나로 연결하신다—창 28:12-17, 요 1:1, 51.
  - C. 우리 사람의 영 또한 하나님의 거처이다.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, 그리스도께서 하나님(하늘)을 우리에게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(하늘)께 연결하시는 것을 느낀다. 이처럼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계단이다—요 14:6, 엡 2:22, 히 4:16.
- III. ‘이스라엘’은 ‘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’(창 32:28)과 ‘하나님의 왕자’를 의미한다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생활이다—비교 빌 4:5-7, 11-13.
- A. 변화는 믿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기능으로서,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짐으로 이뤄지며,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표현을 가져 온다—고후 3:18, 롬 12:1-2.
  - B.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는 야곱을 변화의 ‘오븐’ 속에 넣도록 사용되었고, 라반과 야곱의 아내들은 그 오븐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었다.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환경의 각 방향을 주권적으로 안내하심으로 그들 안에서 변화의 일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—롬 8:28-30.
- IV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라는 유일한 터 위에 있는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이다(롬 12:2).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위한 이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.
- A. ‘날마다’—고후 4:16, 시 68:19.
  - B. ‘점점 더 빛남’—잠 4:18.
  - C. ‘아침마다’—사 50:4.
  - D. ‘영광에서 영광에 이룸’—고후 3:18.
  - E. ‘힘을 얻고 더 얻음’—시 84:7.
  - F. ‘은혜 위에 은혜’—요 1:16.
  - G. ‘여기서도 조금, 저기서도 조금’—사 28:13.
  - H. ‘한 사람씩’—고전 14:31.

I. ‘이 집 저 집에서’—행 20:20.

V. “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…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.”—**롬 8:28.**

- A. 여기서 선은 물질적인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.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—눅 18:19.
- B.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일과 사물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시어 우리에게 선(시 68:19상), 곧 삼일 하나님 자신을 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수단이다(비교 창 45:5, 50:20).
- C.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과 상황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일에 조화되도록 안배하신 것으로서, 우리를 변화시키어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—마 10:29-31, 롬 8:28-29.

VI. “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,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.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찌끼가 곱게 가라앉은,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. 맛이 그대로 남아 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”—**렘 48:11, 히 12:5-7, 9-11, 비교 겔 25:8.**

- A. 포도주의 찌끼가 가라앉은 것은 포도주가 혼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맑고 순수한 포도주를 얻으려면 포도주를 반드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부어야 한다.
- B. 주님은 우리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붓고 계신다. 즉, 우리의 모든 찌끼가 사라지고 우리의 맛이 없어지며 우리의 향기가 달라질 때까지, 주님은 오늘은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내일은 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, 우리를 이런 환경에 두셨다가 저런 환경으로 옮기시고, 이런 체험에서 저런 체험으로 옮기신다—고후 2:15.
- C. 우리의 환경에 있는 ‘예수님을 죽게 한 것’은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개조한다.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 있는 성령의 징계로서,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. 이럴 때 우리는 몸의 생활을 위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된다—롬 8:6, 9-10, 36, 고후 4:10, 16-18, 롬 5:17, 21, 12:1-2.

VII.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야곱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되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렸고, 그의 탈취하는 손은 축복하는 손이 되었으며,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었다—**롬 5:17, 21.**

- A.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,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꾼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—히 6:1상.
- B. 야곱의 탈취하는 손은 축복하는 손이 되었다. 축복은 생명의 넘쳐흐름이다—창 47:7, 10, 48:14-16.
- C.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인 야곱은 하나님으로 적셔졌다.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—창 49:1, 비교 고전 14:31.
- D.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과 교통으로서 그들 안에 이끌어 와, 그들이 몸의 생활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영, 곧 삼일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—창 14:18-19, 민 6:23-27, 고후 13:14.